

약수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회위원장

유치원장



회의 일시 및 장소

2014년 1월 23일(목요일) 저녁 19:00, 유치원 1층 빛반 교실

참석 위원

학부모위원(4명) - 김진경, 신홍주, 유희섭, 이현정
교원위원(4명) - 양순실, 조문숙, 백윤미, 마혜란

의사일정

1. 2013학년도 교육과정운영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 검토
2. 2014학년도 방과 후 과정 교육활동 과목 자문
3. 2014학년도 교육비에 대한 자문
4. 2014학년도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
5. 기타: 유치원 가방 및 체육복 선정에 대한 논의

○ 간사 : 오늘 모임은 총 네 가지 안건에 대한 회의로서 2013학년도 교육과정운영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 검토, 2014학년도 방과 후 과정 교육활동 과목 자문, 2014학년도 교육비에 대한 자문, 2014학년도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타 논의로 유치원 가방 및 체육복 선정에 대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학년도 교육과정운영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전 가정으로 배부되었던 조사 결과 안내 자료로 함께 나눔>

○ 양순실원장 : 학기별로 2번에 걸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와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25부 배부해서 87부 회수되어, 전체 약 70%의 의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여를 안 하신 30%의 의견은 알 수가 없어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4점대로 만족하시고, 우수한 점들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의사항들을 한 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영어강사채용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진경위원 : 솔직히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경험상 좋지 않을까요?

○ 양순실원장 : 네. 어떤 점에서 원어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학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여러 이유로 교육청에서는 원어민채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강사 대비 2~3배의 강사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제대로 전공한 내국인강사가 유아에게는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유희섭위원 : 영어를 유치원에서 매일 하고, 7세가 되어서인지 영어표현이 점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에도 만족합니다. 그런데 영어교육비가 연령별로 차이가 있던데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 양순실원장 : 네. 3세-25분, 4세-30분, 5세-40분 진행됩니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대그룹활동 후에 영역별로 영어강사와 놀이하는 시간이 더 추가됩니다. 연령별로 시간이 추가되면, 그만큼 강사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교재비와 강사비로 인한 연령별 교육비 차등이 있습니다.

- 간사 : 답변이 되셨는지요? 본원에서는 원어민강사는 채용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외에 의견이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간식에 대한 것은 지난 회의 때 나왔으므로 넘어가고, 도시락 메뉴 사진 탑재에 대한 의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흥주위원 : 사실 궁금해요. 그날 우리 아이가 무엇을 먹는지요. 사진으로라도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순실원장 : 네. 그렇지 않아도 이런 의견이 있어 원감님께서 일이 추가되기는 하지만, 1주일에 2번이라도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당일 조리이기 때문에 미리 촬영을 할 수는 없으니까, 매일 촬영을 해야 하죠.
- 간사 : 홈페이지에 급식폴더를 추가할 수 있다면, 매일 촬영한 것을 수, 금 주 2회 정도 올리는 것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신흥주위원 : 그렇게라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간사 : 그럼, 새학년도에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에 의견이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방학이 길다는 의견이 있어 이것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 양순실원장 : 유치원을 학교라고 본다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학 중 어려움이 있으신 학부모님들을 위해 방학 중 추가적으로 종일반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겨울에만 공사가 없었지, 매 방학 때 마다 유치원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정비와 유아들의 생활, 교사들의 자기개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 간사 : 이 외에 의견이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방과 후 특성화활동 시간이 일찍 귀가하는 유아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 김진경위원 : 유치원수업이 기본이니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개인 학원시간은 유치원수업 시간에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 간사 : 네. 7반이 수업을 하는 관계로 수업 스케줄이 여유가 없습니다. 이에 끝나는 시간까지 조율하기는 어렵고, 대신 반끼리 1,2학기 시간표를 바꾸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의견이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체육복, 가방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이는 본 안전들을 마치고, 추후 카달로그를 보며 나누겠습니다. 가정통신문은 학부모위원장님들일 건의대로 전체 설문을 한 결과, 인쇄배부 쪽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 백윤미위원 : 많은 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고 계시나, 인쇄배부가 되어도, 뒷면까지 확인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인쇄배부 여부가 문제일까요?
- 간사 : 네. 사실 지금처럼 해도 잘 챙기시는 분들은 잘 챙겨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가정통신문 인쇄배부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1학기에 우선 인쇄배부하고, 이전과 비교해 가정과의 협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원래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면으로 나가는 만큼, 개별적인 추가 안내도 없답니다. 그만큼 학부모님들의 책임이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 유희섭위원 : 홈페이지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꼭 홈페이지가 필수가 아니라면, 카페나 밴드 등으로 하면, 안되나요? 거기에서는 새로 올라온 자료에 대한 안내가 바로 떠서 들어가 보게 되더라구요. 그럼 확인도 더 쉬우니까 좋을 것 같아요.

- 양순실원장 : 홈페이지는 기관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로 개설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유치원자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유치원알리미 등 다양한 연동이 가능합니다.
- 간사 : 새로운 자료가 홈페이지에 게시됐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은 더 많아 질 수도 있겠습니다. 검색이 아니라, 유치원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 관리업체에 건의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 이번에는 2014학년도 방과 후 특성화활동 과목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 양순실원장 : 87부 회수에 과목별로 모두 60이상의 만족, 선택이 나왔기 때문에 만족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코엔코가 타과목에 비해 점수가 낮습니다. 코엔코는 진행요일이 달라 두 분의 강사가 오시는데 그에 따라 만족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세의 코엔코를 연령 대비 수준이 낮다고 여기시거나, 참여를 꺼리는 소수의 남아들도 있어 7세 특색프로그램인 장구가 포함된 국악통합교육활동을 하면 어떨까합니다.
- 유희섭, 이현정위원 : 저는 7세인데도 코엔코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음악활동을 통합적으로 다양하게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피아노, 바이올린 등은 학원도 많아 굳이 유치원에서 개설할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국악프로그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마당놀이 공연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몰입하더라구요. 전래놀이를 경험하는 것도 좋구요.
- 간사 : 그럼, 올해 7세 학부모님이 되는 김진경위원님께서서는 어떠신가요?
- 김진경위원 : 우리 아이는 코엔코도 참 좋아했어요. 오늘은 어떤 나라를 여행 갔다 왔다면서요. 국악프로그램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님들 장구 연주하는 거 따라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 양순실원장 : 그럼 7세 음악활동 과목만 변화를 주고, 이전 과목들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모두 동의함.>
- 간사 : 동의하신 대로 2014학년도 특성화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에는 2014학년도 교육비에 대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 양순실원장 : 교사경력에 따른 호봉인상, 재료비 상승으로 인해 교육비 1만원, 교재비 5천원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떠신지요? 주변 유치원들과 비교해 우리 유치원의 원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 유희섭, 이현정, 신흥주위원 : 주변에서 원비로 인한 불만은 듣지 못했습니다.
- 김진경위원 : 제 주변에서 다른 원의 원비를 들었을 때는, 적절한 듯 합니다. 비싼 편도 아니고, 아주 싼 것은 아니지만 여러 교육활동을 경험하는 것을 봤을 땐 괜찮을 것 같아요.
- 양순실원장 : 사실 교육비를 동결하면, 교육청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복지재정이 안 좋아 노인이나 빈민층의 어려움이 더하다는데, 그 재원이 쓰여 질 수 있다면 이것도 값진 일이 아닐까요? 또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중심에 두고, 학부모님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정도의 인상, 제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월15,000원의 인상이 부담되시나요?
<모두 인상폭이 적절한 것으로 동의함.>
- 양순실원장 : 학부모님들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 ○

○ 간사 : 이번에는 2014학년도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문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받고 오신 김진경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 김진경위원 : 오늘 연수에서 사립유치원 사례발표가 있었는데, 그 원에서는 5월초에 학부모님이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서로 얼굴도 보고, 번호도 교환해서 위원들과 학부모들이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만족도조사결과에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도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친한 학부모님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걱정이었어요.

○ 양순실원장 : 사실 번호공개를 원하지 않는 학부모님도 계실 수 있고, 행사 몇 번으로 친분을 쌓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이현정위원 : 개인메일로는 이제까지 한분만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없어요.

제가 아는 지인도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 밴드나 카페를 운영위원이 반별로 만들어 가입한 학부모들이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도록 하더라도 구요. 거기서 다양한 교육정보도 얻고 잘 활용되는 것 같았어요.

○ 간사 : 그렇다면 홈페이지에 운영위원회 게시판을 만들면 어떨까요?

○ 유희섭위원 : 그러면 너무 오픈되어서 오히려 의견을 남기기가 편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만 학부모들만, 같은 연령만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신홍주위원 : 근데 왜 홈페이지에는 게시판이 없나요?

○ 양순실원장 :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으로 폐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꼭 문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온라인문의에 작성하시면 바로 내 핸드폰으로 옵니다.

○ 김진경위원 : 맞아요. 댓글로 인해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 유희섭위원 : 원하는 학부모만 가입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밴드나 카페활동이 좋을 것 같아요.

○ 간사 : 그럼 졸업하시는 학부모위원 2분, 사정상 연임하실 수 없는 1분이 있어 새학년도에 3분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해야 하니, 꾸러지면 선출된 위원들이 반별 혹은 연령별로 밴드나 카페를 만들어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하겠네요. 동의하십니까?

<모두 동의함.>

○ 간사 : 이번에는 기타 논의로 체육복과 가방 지문을 구하겠습니다.

현재 체육복과 가방은 어떠신지요?

○ 이현정위원 : 저는 그냥 세탁할 수 있는 가방이 좋은 것 같아요. 체육복은 나가면 눈에 잘 띄어서 좋은 것 같아요.

○ 김진경위원 : 유치원 가방, 체육복이 거의 다 비슷하지 않나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 양순실원장 : 체육복은 세탁의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있고, 가방은 디자인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있어요. 신제품 카달로그를 준비했으니, 한 번 돌아가면서 선호하시는 것에 표시해 주세요. 교사들의 안목과 학부모님들의 안목이 같은지 다른지 보려구요.

그런데, 새로 선정한다고 해도 2008년생 유아들은 재원생, 신입생 모두 기존 디자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2008년생의 경우, 신입생의 비율이 매우 적고, 그 아이들만 별도로 다르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을 원하셔도 기존의 것을 드려요. 2009년생은 신입생의 경우, 가방은 기존 것, 체육복은 사이즈가 없어 새로 선정된 것을 드립니다. 2010년생은 모두 새로 선정된 것으로 가구요. 사실 이렇게 되면, 기존 우리 원에서 구입했던 여유분에 대한 재고물량을 그대로 다 그냥 놔둬야 해서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도 논의가 있는 만큼, 감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방의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으니, 한 번 살펴보세요.

○ 이현정위원 : 체육복은 일단 외부에 나갔을 때 눈에 잘 보여야 안전을 위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탁했을 때 줄어드는 100% 면은 피했으면 해요.

○ 양순실원장 : 그래서 전에 쿨론이라는 것을 써 봤는데, 면이 아니라서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이에 따라서는 아토피라던지, 민감한 피부라 천연섬유가 아니면 안되기도 하고...맞추기가 어렵네요.

그럼, 오늘 몇 가지 선정해 주시면, 해당업체에 샘플을 요구해 받아본 후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카달로그를 보며, 가방과 체육복에 각자 선호하는 것을 표기함. 교사들이 선정해 놓은 것과 비교했을 때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입장에서의 선택이 다소 다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됨.

- 눈에 잘 보이는 것, 실용적인 것>

○ 간사 : 오늘 긴 시간동안 회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나눈 귀한 의견들은 고려해서 더욱 알찬 2014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기 위원으로 고생 해주신 이현정위원장님, 유희섭위원장님 이제 졸업하면 함께 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졸업하시더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기 록 자 : 간사 조문숙 